

“조합원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 1순위는 청렴”

서광주·비아농협 투표현장 가보니
“단합과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
“선거철만 보는 조합장” 비판도

“우리 농협을 최고의 농협으로 만들어주세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8일 유권자들은 조합을 발전시킬 일꾼을 뽑기 위해 일찍부터 투표소를 찾았다.

광주에서는 총 49명의 후보가 18개 조합장 자리를 두고 선거를 치렀다.

투표는 오후 5시 마감까지 이어졌고 투표함이 닫히자 선거에 대한 만족과 아쉬움의 목소리가 뒤섞이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찾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 비아농협, 아침부터 투표 열기가 뜨거웠다. 오랜 기간 조합원으로서 함께 해서로 잘 알고 있는 유권자들은 투표소 앞에서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이들은 ‘누구 뽑을 거냐’, ‘잘 뽑아라’ 등의 환담을 한 뒤 투표소로 향했다.

길게 줄을 선 유권자들은 자신의 차례가 되자 하얀 천막 안으로 들어섰다. 망설임 없이 곧바로 투표를 마치고 나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한참을 고민한 뒤 신중히 투표하는 이도 있었다.

투표를 마치고 나온 조합원들 상당수는 ‘청렴’을 가장 우선시했다고 밝혔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 8일 광주 북구청 회의실에서 선거 개표 사무원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조합원 활동 4년 만에 첫 투표를 했다는 김선희(70)씨는 “조합장 선거에 별생각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래도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투표하러 왔다”며 “다른 지역은 무투표 당선된 곳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조합은 후보끼리 열심히 경쟁하고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가장 청렴하고 부정부패 걱정 없는 후보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백현순(63)씨는 “특정 ‘사람’이나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닌, 진짜 농협과 조합원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깨끗하고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일부 유권자는 선거철을 제외하고 조합장과 조합원의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천준광(68)씨는 “조합원들은 조합장에

대해 잘 모른다. 평소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선거철에 공약으로만 이들의 역량을 파악해야 한다”며 “조합장이 일년에 한두 번이라도 영농가를 찾아 얼굴을 비추고 소통해준다면 좋겠다. 그래야 조합원들도 조합에 필요하거나 바라는 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광주 서구 광천동 서광주농협 투표장.

서광주농협은 광주에서 ‘빅3’로 꼽힐 정도로 큰 규모여서 관심이 집중됐다.

48년 동안 조합원으로 활동한 박귀환(79)씨는 “첫 조합장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꼭 참여했다”며 “서광주농협은 오랫동안 큰 문제 없이 잘 운영됐다. 앞으로도 농협을 꾸준히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산림조합 투표도 같은 투표장에서 진행돼 대기줄이 길었다. 줄을 서는 동안 유권자들은 미리 신분증을 꺼내 놓았고 안내직원이 하나둘씩 들여보내자 신원을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 갔다.

투표를 마치고 나온 김규금(69)씨는 “서광주농협에서 대의원으로 활동했었는데, 그때 조합장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조합원들이 단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곳 역시 선거기간에만 반짝 등장하는 조합장의 존재감에 아쉬움을 표하는 조합원이 있었다.

김길식(69)씨는 “조합장 후보들의 얼굴도 이름도 잘 모르지만 투표하려고 자꾸 문자가 오길래 투표소에 왔다”며 “선거기간에만 조합장이나 후보를 알게 되는 점이 아쉽다. 관심을 많이 두진 않았지만 선출된 조합장은 농협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혜민·강주비 기자

광주·전남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79건·107명 수사

기부행위 55건으로 ‘최다’
‘당선무효’ 속출 우려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결과 광주·전남에서 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로 총 107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향후 수사·재판 경과에 따라 당선 무효 사례가 속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광주·전남경찰에 따르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인 이날까지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으로 79건, 관련인 107명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광주·전남에서

37건 57명이 수사 대상이었지만 선거가 막바지에 오면서 각종 고발이 이어졌고 금품 수수 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수사 대상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지역의 경우 법 위반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14건(18명) △사전선거운동 2건(4명) △호별 방문 1건(1명) △기부행위·호별 방문 1건(1명) 등이다. 2건 이상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를 제외하면 총 23명이 수사 대상이다.

전남경찰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일인 이날까지 총 61건에 대해 수사, 89명을 형사 입건했다. 김은지 기자

광주·전남 조합장 무투표 당선자

◇광주(2명) △북광주농협 구상봉(54·현 조합장) △민물장어양식수협 이성현(67·현 조합장) ◇전남(52명) △목포수협 김정룡(59·현 조합장) △나주 공산농협 김승배(59·현 조합장) △나주 금천농협 박하식(62·현 조합장) △나주원예농협 이동희(61·현 조합장) △나주 산림조합 송홍근(62·현 조합장) △여수 축협 박계수(58·현 조합장) △여수 전남동부수협 서광연(64·현 조합장) △순천광양축협 이성기(65·현 조합장) △순천원예농협 채규선(69·현 조합장) △광양농협 허순구(57·현 조합장) △광양동부농협 문정태(47·전 광양동부농협 전무) △광양산림조합 송백섭(65·현 조합장) △담양 금성농협 김상용(52·전 금성농협 비상임이사) △담양농협 보결 김범진(63·전 담양농협 조합장) △장성 삼계농협 김태욱

(67·현 조합장) △장성 삼서농협 이태영(62·현 조합장) △곡성 석곡농협 한승준(61·현 조합장) △곡성 옥과농협 구정훈(61·현 조합장) △곡성축협 김형조(57·전 곡성축협 상무) △구례 산동농협 허재근(62·현 조합장) △구례산림조합 조진호(48·전 전남도 임도 담당평가 위원) △고흥 두원농협 신선식(62·현 조합장) △고흥 두원농협 신선식(62·현 조합장) △고흥 풍양농협 송영철(54·현 조합장) △고흥 흥양농협 조성문(57·현 조합장) △고흥 나로도수협 고철웅(62·현 조합장) △보성 북부농협 채희정(65·현 조합장) △화순 동북농협 김정수(63·현 조합장) △화순 천운농협 김준호(56·현 조합장) △장흥 안양농협 김영중(57·현 조합장) △정남진장흥농협 강경일(65·현 조합장) △장흥수협 이성배(66·현 조합장) △강진농협 진성국(61·현 조합장) △강진완도수협 김영래(61·현 조합장) △

완도농협 김미남(64·현 조합장) △완도 금일수협 서광재(64·현 조합장) △해남 북평농협 박순봉(64·전 북평농협 감사) △해남진도축협 한종희(67·현 조합장) △진도 선진농협 정해민(63·현 조합장) △진도산림조합 허용범(54·진도산림조합 직원) △영암 군서농협 박현규(65·현 조합장) △서영암농협 김원식(56·현 조합장) △영암 월출산농협 박성표(57·현 조합장) △영암축협 이맹종(61·현 조합장) △무안 삼향농협 나용성(64·현 조합장) △목포무안신안축협 문만식(60·현 조합장) △전남서남부채소농협 배정섭(60·현 조합장) △무안산림조합 박병석(67·현 조합장) △서영광농협 강상호(54·전 서영광농협 이사) △영광농협 정길수(68·현 조합장) △북신안농협 양영모(68·현 조합장) △신안 압해농협 천성태(62·현 조합장) △신안수협 김길동(67·현 조합장)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Yes & True balanced

밸런스 라인

PERON 엑스페론